

第268回 臨時會

'08. 3. 4. ~ 3. 5.

道政質問書



忠清北道議會

建設文化委員會

金仁洙議員

건설문화위원회 김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

그리고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도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그리고 경제특별도 건설이라는 목표를 설정, 충북 아젠다 2010전략 실천을 위해 BUY충북, 충북뉴딜정책, 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 등 4대 분야 10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이의 실천을 위한 조직 개편과 행정력의 집중을 통해 도지사님께서서는 지난 1년간 열심히 추진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 당초보다 투자유치 목표를 크게 초과한 13조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 충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아울러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아젠다2010을 한 단계 뛰어 넘어 충북 아젠다2010+를 경제특별도 선포 1주년 기념식에서 발표하셨는데 충북 아젠다2010+는 투자유치 목표액 보다 16

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신규 일자리도 7만5천개를 창출하고 충북의 GRDP를 500억달러 수준으로 증대하였으며 도민 1인당 소득도 3만3천달러 시대를 개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능동적으로 앞장서 오신 정우택 도지사님과 실·국장님 그리고 도 산하 공직자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충북도의 열정이라면 한 단계 목표를 업그레이드한 충북 아젠다2010+목표 역시 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정우택 도지사님의 추진력과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지난 1월 25일 라마다플라자청주호텔에서 있었던 경제특별도 1주년 기념식장에서의 성과에 대한 축제의 물결이 올해도 계속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군간의 균형발전을 보면 청주권과 중부권의 공공기관 및 전략산업

에 대한 정책 지원의 편중으로 인해 여전히 남부권과 북부권은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의 정책이 약한 시·군은 무시하고 혜택을 받는 반면, 강한 시·군에게는 굽히고 더욱더 도와준 억약부강(抑弱扶強)식 정책을 펴온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도지사님께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충북 아젠다2010+ 4대 전략 목표의 하나로 균형발전을 설정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시·군간 균형발전이 개선되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충북의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특별도 건설 추진을 위해 지난 1년간 75개 기업으로부터 13조원에 달하는 투자유치 실적을 올려 충북도가 축제분위기이나 제일 낙후된 단양군과 보은군은 단1개의 업체도 입주가 안 되었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을 표명하는 도에서 이러한 결과를 만든 것에 대하여 실망이 큼니다.

이는 정부에서 지난 2월 4일 발표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에서 충청권이 최대 피해 지역이자 정부로부터의 홀대와 부당성을 알리며 재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하셨고, 금번 출범한 새 정부의 인선까지도 충북이 완전 소외되었다고 반발하시면서도, 도에서는 오래전부터 도정방침인 균형발전을 포기한 정책을 펴고 있어 정부의 충북 홀대라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편적으로 로스쿨 유치문제와 비교하여 보면 도내 2개 대학 중 충북대학교가 예비인가 대학교로 선정되어 그래도 유치 비율 50%나 되는 반면, 경제특별도 건설 1년 성과물 중 보은군과 단양군의 기업유치는 하나도 없기에 비율은 0%가 아니라 -750%나 됩니다.

이렇듯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지역간 균형발전시책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북도내 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균형발전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올해부터 실시할 계획인데 지원계획을 보면 낙후지역 6개군에 15억에서 18억원에 불과 합니다. 이렇게 적은 지원금으로는 점점 깊어만 가는 시·군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보며 이러한 지원조례는 도의 생색내기나 홍보성 조례일 뿐 현실적으로 시·군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지원액을 획기적으로 늘려 주셔야 되는데 이에 대한 충북도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 2월 1일 선언한 '관광 도약의 해'에 맞춰 2개의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청주 국제공항활성화, 관광인프라 구축,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2010년 충북관광객 5천만 시대를 맞기 위해 총 9,83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굴뚝 없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을 환영하며 이러한 도의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져 충북관광이 새롭게 도약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재 관광정책 중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보은, 충주, 단양 3곳의 관광 특구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이에 대한 지원이나 행정적 지도도 소홀해 특구지정부 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방치하여 두는 부분과,

또한, 도에서 관리하는 청남대는 연간 10억원의 적자를 보며 평균 사업비로만 26억원이 투자되고 있으나 3곳의 국립공원 중 2곳의 국립공원은 아예 사업비가 없고 그나마 속리산에만 3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휴양지나 생태관광지를 관광 쪽으로 잘못 판단하여 이렇듯 투자가 편중되고 또 우선 순위가 맞지 않는 관광정책을 펴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베이징올림픽 전·후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최근 3년 동안 17억원을 투자하고 계시는데 충북이 공항 활성화를 하는 이유는 중국관광객을 충북에 유치토록 하여 소득을 올리

자는 것인데 과연 도가 중국인 관광객 눈높이에 맞게 저렴한 호텔료, 친절한 도민상, 충북의 브랜드, 전통 미래융합 차별화 등 기본 인프라를 얼마나 준비 하였나 궁금하며 오히려 준비 안 된 상태에서의 공항활성화가 해외여행 편리로 인해 도민의 해외여행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제주특별도와 서울특별시에 중국인 관광객 수송 역할이나 해주어 타 시·도에 좋은 일만 해주는 것이나 되지 않을까 생각 되는데 이러한 투자가 도에 얼마나 실익이 되나? 함께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낙후된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은 국립공원을 보유한 군으로 도민이나 전 국민에게 맑은 물, 맑은 공기를 공급하여 주는 사람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잘 보존된 산림과 함께 국보, 보물,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사적지를 3개군이 185점이나 보유하고 기타 중요 민속자료, 역사적인 인물 등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소외된 3개군이다 보니 소방행정에

서도 홀대를 받아 언제 소방서로 승격 될지 도의 중·장기 계획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조례와 관계없이 군에 2개 이상의 안전센터가 있으면 소방서로 승격을 하는데 아직 서가 안 된 청원군과 옥천군은 이미 안전센터가 2곳 이상 준공 되어 향후 서로써 승격하는 행정 절차만 남았으나 소외된 3개군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 관광 자원과 국보급 문화재를 보유하고 또 집단여행객이 체류하는 지역으로 화재예방이나 초기진압 등을 위해 소방조직이 더 강화되어야 함에도 도에서는 소방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립공원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아 낙후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 지역이 소방정책에서조차도 서자 취급을 당하는 것은 매우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달 10일 600년 전부터 서울을 지켜온 국

보1호 승례문이 화재로 삼시간에 잿더미로 변한 가운데 현장을 둘러보신 경우택 도지사님께서 문화재 관리 소홀로 민족의 자존심인 국보가 한순간에 불타 버려 안타깝고 가슴 아프시다며 충북 도내 주요 문화재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하셨는데 현재 충북에는 중요 문화재가 623점이 있고 그중 목조 문화재는 163점으로 타 시·도에 비교해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보존은 철저한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또 과학적인 화재 예방 및 진화에 대한 시스템의 구축과 화재 발생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가까운 장소에 진압 장비나 진압 요원이 있어야 합니다.

도지사님 안전점검 지시에 따라 보은에서도 법주사내 국보55호인 팔상전을 대상으로 긴급 소방훈련을 청주동부소방서에서 실시하였는데 안전센터가 속리산 법주사와는 거리가 먼 보은읍에 있어 화재진압용 굴

절사다리차가 보은읍에서 법주사 입구까지 도착하는데 20분이 소요되었고 법주사 입구에서 경내로 진입하는데 출입 여건이 불량하여 20분이 소요되어 총 40분이 소요됐습니다.

목조문화재는 화재 발생 후 5~10분내 초기진압이 제일 중요하나 보은군 특별훈련에서 나타나듯 소방조직의 취약으로 40분이 소요돼 초기진압은 기대할 수 없어 법주사 화재 발생시 승례문 화재에서와 같이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3개군 소방행정의 중요성과 군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119안전센터가 증설되어 소방서로 승격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충북도에서는 전체적으로 문화기반 시설이 부족하지만 그나마 도내에서 문화공연, 전시장,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 문화시설 면에서도

청주권에만 편중되어 있어 도민이 문화혜택을 향유하는 분야에도 시·군 환경 차이가 큰 것이 현실이고 더욱 경제특별도 건설로 기업유치가 청주권과 중부권에 몰려 향후 지방자립도의 격차가 더욱 커져 문화 인프라 구축 또한 지금보다 더 불균형이 이루어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예상되는 문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해소하여 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1962년 국보1호로 지정된 승례문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화재였음에도 화재로 전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서울 도심 한복판의 승례문이 하룻밤 사이 소실되어 대한민국 600년 영화가 잿더미로 검게 타버렸으나,

승례문의 화재가 국민 모두에게 주는 값진 교훈은 크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달라진 점이고 또 정부나 문화재청 등 전문 기

관에서의 문화재 관리에 대한 예산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액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번 소실된 문화재는 다시 복원할 수는 있으나 역사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문화재로써의 가치는 영원히 상실되는 것입니다. 송례문의 화재가 우리 도에서도 값진 교훈으로 삼아 문화재 보존에 더욱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국가 지정 문화재나 사적지를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존, 복원, 유지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번 송례문의 화재는 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인 방화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도는 623점의 문화재와 많은 사적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사적지중 국가 지정 사적 제235호인 삼년산성도 송례문 화재에서처럼 똑같은 인재로 인해 원형을 잃었습니다.

600년 된 문화재의 소실에 국민 모두가 비통해 하는데 축성된 지 1535년이나 된 국가 지정 사적지가 인재로 인하여 원형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비통해 하고 가슴 아파하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삼년산성 복원 시방서에 보면 성 안·밖 길 부분이 나마 기존 성벽과 똑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설계 내역서에는 현지 성돌을 20~30% 채집하여 목도 운반해 사용하도록 했고 이로 인한 인건비가 전체 공사비의 5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삼년산성 성곽 복원을 시작한지 35년 동안 29회 이상 성곽 보수를 하였고 64억의 국·도비를 투자하였는데 시방서대로 성곽 복원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감독 부서인 충북도와 문화재청에서는 계속하여 준공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95년 감사원 감사에서 수감자의 답변이 현지 성돌이 없어 불가피하게 화강석을 사용하였

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산성 복원공사를 하지 않은 곳에는 무너진 돌들이 거의 남아 있어 성돌이 없었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지금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돌 부족분에 대하여 외지에서 반입해 올 때만 중장비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시방서에 나타나 있으나 그동안 반복하여 장비로 시공을 하였고 또한 파 올린 기존의 성돌은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을 공사전의 모습으로 원상복구 하던 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시방서대로 원형 복구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에 대한 책임을 못 진다면 시방서와 다르게 공사를 한 업체와 담당직원 모두를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여 주셔야 합니다.

600년 전 문화재의 소실에 대하여 전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데 1535년이나 된 산성 문화재는 반복하여 불법 시공되어도 책임을 묻지 않고 이대로 묻어주는 것은 역사적으로 큰 잘못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도에서는 도내 4개의 산성을 묶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토록 하여 산성의 역사성을 세계에 알리고 또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인재로 인해 원형을 잃어버린 문화재를 갖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하려고 하는 정책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삼년산성은 차라리 성곽 복원 공사를 하지 않고 무너진 산성으로 그대로 두었다면 벌써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삼년산성은 세계문화유산 잠재 목록에만 들어가 있을 뿐 원형이 훼손되어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지 못하고 있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나라 고대 축성법 연구에 매우 중요한 학술적 가치가 있고 또, 관광자원으로도 무한한 가치가 있는 삼년산성을 지방서와 다르게 시공한 업자와 불법 시공한 것을 알면서 준공처리를 하여준 담당공무원 그리고 국·도비를 손실시킨 도의 책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문화재보수 관련법에 의해 처리해 주실 것을 강조합니다.

일곱 번째, 2개의 도 산하기관인 농업기술원과 축산위생연구소 이전계획을 백지화 하신 후 후속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지사님께서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법적 검토를 한 후 지사님께 제출하는 것으로 서로가 약속을 하셔서, 보은발전협의회에서는 2007년 12월 6일 160개 사회단체대표 450명이 참석한 임시총회를 갖고 2개의 도 산하기관 무산에 따른 의견을 접수 받아 그 중에서 보은군 발전에 도움이 될 안을 만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대안을 지사님께 전달하여 그

동안 끌어오던 도 산하기관 무산에 따른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싶었으나 도지사님께서 연말, 연초라 바쁘셔서 아직까지도 면담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님과의 약속에 따라서 보은군민의 의지를 담아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도지사님께서 확실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답을 못 주신다면 당초에 발표된 2개의 도 산하기관이 보은군으로 이전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같은 시기에 발표된 진천, 음성역의 혁신도시는 토지 보상에 들어갔고 제천에 연수타운은 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보은에 바이오농산업단지는 이제 용역중인 상태로 언제 용역을 끝내고 설계를 한 후 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상을 마친 후 본격적인 사업을 할지 의문이 많습니

다. 이렇게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바이오농산업단지 추진 과정에 대해서 충북도의 의지가 있는지, 또 조기착공을 위해 사업시행자를 빨리 선정할 대책은 서 있는지

그리고 330만 m²(평방미터)의 바이오농산업단지 부지에는 국도, 취락지역, 농업진흥지역 및 상수원 보호지역이 포함 돼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많고 바이오농산업관련 기업체만으로는 농산단지 성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입주를 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미온적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인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께서 정하신 도정방침에 부합되도록 도내 균형발전에 더 많은 관심과 시책을 전개하여 주시고, 특히, 보은군에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니다.

감사합니다.